

Letterly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English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Vol. 21 No. 996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February 28 2025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kpark@ownnewengland.com
Clark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한국에서 유일하게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흥원기씨. 평균수명 14.5세를 극복하고 현재 19살 생일을 앞두고 보스톤마라톤에 도전했다. '이 병을 극복하겠다'는 그를 4월 보스톤에서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소아조로증 흥원기 씨,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한다

19살 생일 맞아 신체나이 90에도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 보스톤서 치료받으며 만난 친구 미겔의 치료비용 모금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태어난 지 1년부터 급속한 노화가 진행되는 진행되는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흥원기씨(18)가 오는 4월 보스톤에서 열리는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한다.

건강한 젊은이도 쉽지 않은 보스톤 마라톤 5K, 보스톤체육협회(BAA)로 부터 참가를 허락 받은 흥원기씨의 신체나이는 90여세와 비슷한 상태다. 프로제리아(Progeria)라 불리

는 소아조로증 환자의 평균 수명은 14.5세, 최대 수명은 20세로 알려져 있다. 곧 19세 생일을 앞두고 있고 다리 길이도 다른 흥원기 씨의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이다.

최근 들어 프로제리아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은 신약의 개발 덕분이다. 2012년 개발된 치료제 '로나과립' 은 평균 수명을 약 4.5년 연장시키며 최대 2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체 기사 읽기〉

한국의 유일한 프로제리아 환자 흥원기씨가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보스톤칠드런스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친구가 된 콜롬비아 미겔과의 약속 때문이다. 그들은 성인이 되는 19번째 생일을 기념해 마라톤에 도전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은 도전을 통해 마라톤 경비는 물론 미겔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겔은 최근 들어 병세가 악화되면서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흥씨는 미겔을 보스톤에 초청해 치료하는 방법을 미겔의 가족들과 논의하고 있다. 프로젝트 ▶▶8면으로 계속

힐리 주지사, NIH 감축이 매사추세츠 경제 구석구석 에 심각한 충격

대학 및 매스바이오 대표들과 회의 후 "감축 1달러 당 2-3달러 타격"
대학 및 생명공학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제조, 법률 등까지 피해 막심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국립보건원(NIH)의 간접비 삭감이 주 전체 대학 및 생명공학 산업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경제 곳곳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26일 재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월 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수억 달러 규모의 간접비를 감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비록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지토록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생명공학의 초기단계 연구에 핵심적인 이 기금의 지급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다.

매사추세츠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2024년 34억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아 미국내에서 연구당 가장 많은 연구 보조비를 받는 주였다. 주지사는 연례 그레이터보스톤 상공회의소의 회의에서 "연구에 투자되는 1달러는 매사추세츠에 경제에 2에서 3달러의 영향을 미친다" 지적했다.

연구 정부보조금의 삭감은 생명공학계와 협업하고 있는 장비 제조 ▶▶6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에도 대사관 및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빈발

최근 보스톤 지역 한인, 학생 타켓 삼아 보이스피싱 집중 공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최근 미국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주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사칭 전화가 매사추세츠 한인 및 유학생들에게도 최근 집중적으로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스톤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워싱턴부터 전화를 받고 평소 습관대로 영어로 대담하자 상대방은 전화를 바로 끊었다. 모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지만 워싱턴으로부터 온 전화라 받게 됐다 는 김씨는 걸려온 전화번호가 워싱턴 대사관을 파악했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대사관은 개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렸다.

27일 보스톤총영사관에는 10여통이 넘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전화가 집중적으로 걸려왔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다른 미국내 주요도시 에 이어 보스톤의 한인들과 유학생 들까지 범죄대상으로 확대했다는 방증이다.

주미 대사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 “LA 등 한인들이 많 이 거주하는 총영사관에 미국 대사 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문의

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며 “주미 대사관 대표번호 (202-939-5600)로 전화는 물론 메시지까지 전송하고 있다” 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보이스피싱은 '워싱턴 대사관 에 근무하는 이0 사무관인데 현재 강0를 포함한 120명의 한국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 예정으로 당신도 대상이 다'이라고 하는 등 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한다.

미주 한국일보도 2월 초 뉴저지의 60대 장모씨가 같은 보이스피싱 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의 일부를 내 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이스피싱 범은 장씨의 여권이 도용되어 범죄 에 연루됐다고 하며 한국 법무부 운영하 는 것처럼 꾸며진 웹사이트를 알려 줬다.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니 장씨의 명의로 꾸며진 구속영 장까지 화면에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최근 발달된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개인 정보 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또는 각종 법원 관련 서류가 자동적으로 꾸며 지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보스톤으로 걸려온 보이스 피싱

〈전체 기사 읽기〉

범들은 보스톤 총영사관 또는 다른 공관을 사칭한 후 분실물을 찾아가 라며 전화했으며, 또는 친구를 찾는 다고 위장했다. 이 같은 전화는 공 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보이스피 싱범에 속지 않지만 자칫 방심하는 경우 속아넘어 갈 수 있는 사인이므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보스톤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는 즉각 동포 단체장들에게 연락 주 의를 당부했으며 총영사관 웹사이트 에도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스톤 총영사관 지은석 영사는 “경우 자칫 위험에 노출 될 수 있 으니 전화상으로는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발설해서 안된다” 고 강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집계 에 따르면 이처럼 대사관, IRS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임포스터(Imposter) 사기범으로 인해 미국내 피해자만 2023년 85만6천명에 달했다. 최근들 어 전화보다는 문자 또는 이메일 피 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음력설퍼레이드, 매사추세츠 설날축제로 자리매김

차이나타운에서 벨몬트까지 잇는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축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5회 그레이터 보스톤 음력 설 퍼레이드 (Greater Boston Lunar New Year Rolling Parade)가 2025년 2월 23일 차이나타운 라이온게이트에서 시작해 각 타운별로 돌아 가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는 '뱀의 해'를 맞아 전통 사 지춤과 한국의 부채춤 그리고 무술 공연, 퍼레이드 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수많은 방문객 이 몰려 매사추세츠 최대 규모의 설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퍼레이드는 11시 차이나타운의 라이온게이트에서 우칭 화이트크 레인 쿵푸 (Woo Ching White Crane Kung Fu)의 사자춤과 전통 무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몰 든, 서머빌, 케임브리지, 그리고 벨 몬트까지 각 타운별로 시간을 달리

〈전체 기사 읽기〉

하며 축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참여했으며 한국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는 서머빌 '아트앳더아머리(Arts at the Armory)' 에서 오전 11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제선 난타 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김재휘 총영사, PEM의 김수옥 최고 재외협력 책임자 등이 참여해 PEM 유길준관 재개관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벨몬트타운 센터에서 한국 부채춤 공연, 사자춤 공연, 쿵푸 시범 등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 최인엽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서펜타인 파빌리온 선정 조민석 건축가, 하버드 디자인스쿨 초청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계적인 건축가 조민석 대표의 공개 초청 강연이 오는 3월 13일 목요일 하버드 디자인스쿨에서 열린다.

조민석 매스 스터디스 (Mass Studies) 대표는 서울을 기반으로 20여년간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해왔다. 특히 그는 2024년 한국인 최초로 영국 서펜타인 파빌리온(Serpentine Pavilion) 초청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런던 현대미술관인 서펜타인 갤러리가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청해 설계, 건축하는 한시적 건축물로 건축계에서 큰 명성을 날리고 있는 프로젝트다.

조 대표는 국내에서도 카카오 제주사옥,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부티크모나코 등 프로젝트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의 건축 문화와 철학을 세계에 알린 서펜타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 20년간 매스 스터디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단순히 건축과 학생



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스턴 한인들에도 한국 현대 건축의 흐름과 철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하버드 디자인 스쿨 (48 Quincy Street Piper Auditorium Cambridge, MA 02138)에서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가 참석 가능하다.

<전체 기사 읽기>

참가신청사이트 : <https://www.eventbrite.com/e/minsuk-cho-notes-on-time-tickets-1205981014679?aff=oddtcreator>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 <https://www.gsd.harvard.edu/event/minsuk-cho-notes-on-time/>
bostonkorean@hotmail.com

재미과학기술지협회 주최 2025년 수학경시대회 개최

4월 5일 오후 2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지협회(KSEA) 뉴잉글랜드 지부가 주최하는 2025년 전국 수학경시대회(NMC, National Mathematics Competition)가 오는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대회와 같은 장소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에서 개최되며, 미국내 4~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NMC는 매년 4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되는 미국내 대표적인 수학 경시대회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한화수학올림피아드(Hanwha Mathematics Olympiad)에 초청될 기회를 얻는다. 올해도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한화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회는 20문항의 객관식 문제와 5문항의 단답형 서술 문제로 구성된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이 끝난 후, 뉴잉글랜드 지부 시상식이 즉시 열리며, 성적



상위 3명에게 각각 1등 500달러, 2등 300달러, 3등 2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현재 참가자 등록이 진행 중이며, 등록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등록은 KSEA 공식 홈페이지(<http://nmssc.ksea.o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등록비가 부과된다.

기존 출제문제는 과기협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NMSCinfo@KSEA.org로 이메일 하면 된다.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세계적 지휘자 김은선, 보스턴 심포니 지휘 데뷔

바르토크 · 라흐마니노프 · 리아도프 명곡 연주... 이논 바르나탄 협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감독 김은선씨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SO)의 첫 지휘봉을 잡는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한국인 지휘자인 그녀는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세 차례 공연을 통해 청중과 만난다. 이번 연주회는 '전쟁의 그림자 속 음악(Music in the Shadow of War)'이라는 주제로,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세 곡을 선보인다.

김 감독은 리아도프의 '마법에 걸린 호수(The Enchanted Lake)'로 공연의 서막을 연다. 몽환적인 색채와 세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이 곡은 러시아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어 피아니스트 이논 바르나탄(Inon Bamatan)이 협연자로 나서 바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3번(Piano Concerto No. 3)'을 연주한다. 바르토크가 헝가리를 떠나 미국에서 궁핍과 병마에 시달리며 작곡한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그의 음악적 여정을 감성적으로 집대성한 곡이다. 생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바르토크의 유작이기도 하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3번(Symphony No. 3)'이 연주된다. 서정성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이 곡은 작곡가가 망명 후 미국에서 남긴 대표작 중 하나로, 향수를 자아내는 선율과

강렬한 리듬이 특징이다. 김 감독은 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감독은 뉴욕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 중이다. 2021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그녀는 베르디와 바그너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페라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3-24 시즌에는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파리 오페라에서 '호프만의 이야기(Les Contes d' Hoffmann)'와 마리아 칼라스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맡기도 했다. 또한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바그너의 '파르지팔(Parsifal)'을 지휘하며 탁월한 해석을 선보였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무대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김씨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등 북미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23년, 내셔널 브라스 앙상블과 함께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Ring Cycle)'를 새로운 편곡으로 녹음해 펜타톤(Pentatone) 레이블을 통해 음반으로 발매했다.

그녀의 음악적 성과는 비평가들 사이에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

〈전체 기사 읽기〉

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그녀를 "클래식 음악계의 떠오르는 별"로 칭하며, "탁월한 감각, 유연성이 돋보이는 지휘자"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큐리어(Business Courier)는 그녀를 "역동적인 존재감과 명확한 해석력, 표현력을 지닌 지휘자"라고 극찬했다.

서울 출신인 김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본격적인 지휘 교육을 받았다. 졸업 직후 마드리드 왕립극장(Teatro Real)의 '지저스 로페즈 코보스 국제 지휘 콩쿠르(Jesús López Cobos Opera Conducting Competition)'에서 1위를 차지하며 유럽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2025년 봄학기 등록 시작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의 2025년 봄학기가 예정보다 늦어진 3월 30일 개강한다.

전통예술원은 2022년 10월 첫 학기를 시작한 이후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왔다. 수업은 매주 일요일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학기 마지막에는 쇼케이스 공연이 열린다.

조미나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윈터 쇼케이스에서 박지혜 교사의 지도 아래, 기존의 임실필봉 농악 가락을 사물놀이 형태로 재해석해 연주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학기 상모놀이와 이한나 교사가 지도하는 한국무용반의 소고춤 결합한 공연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도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학기에는 가야금(김경선), 아쟁(김유나), 해금(정재니), 장구/풍물(박지혜), 한국무용(이한나) 수업이 개설되며, 현재 전통예술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및 자세한 정보:

<https://www.igii.org/bakta.html>

JUNG KWAN JANG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6년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윤은상 유매스로웰 교수 출판 기념회

저서 <AI시대 시장진입 전략> 출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윤은상 유매스로웰 마케팅 명예 교수가 2월 22일 토요일 벌링턴 소재 레스토랑 카페에스카드릴(Café Escadrille) 연회장에서 저서 "AI시대 시장진입 전략"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이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온누리 교회 교우, 서울대학 동창 등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과 멀리 뉴저지의 친우까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자소개 축가, 축시 그리고 하프 연주 등의 순서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윤은상 교수는 책 소개에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했다" 고 설명했다. 그

는 보스톤 마라톤에서 서윤복, 함기용, 그리고 이봉주 3명이 각기 다른 경쟁구도로 우승했다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신상품 신기술의 개발 경쟁도 이와 비슷하다" 고 말했다.

그는 선두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애플, 후발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수십년 동안 선두를 유지한 코카콜라를 예로 들었다. 특히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서 신제품 경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윤교수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선구기업 상품 4가지 사례와 후발기업 케이스 4사례를 각각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한국에 강의하러 갈 때마다 책을 쓰라는 권유를 받아 온 뒤 집필하게 됐다" 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모일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전체 기사 읽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윤교수는 참석자들에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를 한권씩 선물했다.

윤은상 교수는 유매스 로웰 캠퍼스 마케팅 명예 교수로 서울대서 경제학 석사를, 조지아대학교에서 금융학 MBA를, 펜실베이니아주립대서 경영과학 및 마케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번(Auburn)대 조교수를 거쳐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유매스 로웰에서 연구소장, 정교수 그리고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윤은상 교수는 <뉴잉글랜드 한인사>에서 조선 보병사의 로웰을 방문기록을 연구해 집필했다. 이를 계기로 KBS 방송 등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 역사 발굴에도 깊은 조예를 보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임태희 경기교육감, 보스톤 방문 ...하버드 특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보스톤을 방문해 하버드 MIT 대학원 학생들과 간담회,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특강, 벨몬트 학군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25일 임 교육감은 하버드 MIT 대학원 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 과정을 설명하며 경기도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26일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교육개혁: 개별화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특별강

<전체 기사 읽기>

연을 진행했다. 이후 교육대학원 교수들과 강연 내용을 비롯해 세계 교육개혁에 대해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매사추세츠 최고 학군 중의 하나인 벨몬트를 방문해 벨몬트 교육감 및 벨몬트 하이스쿨 학생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벨몬트에는 하버드대 교수이자 벨몬트 주민인 퍼넨도 레이머스 박사가 동행했다.

이번 보스톤 및 하버드대 방문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가했던 하버드대 측이 초청해 이뤄졌다.

북미최대 안마의사 전문업체 OTA WORLD가

Osaki+ Promo Video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캐롤린 본점 | 1001 W Crosby Rd, Carrollton, TX 75006

“안정적인 소자본 창업
(5만에서 10만)
간편한 매장 운영”

※ 16개 주 34개 스토어 오픈 성업중

☎ 🚚 📞 🏆

자고 배송 상담 워런터

☎ 24시간 존 리 | John Lee

214-504-6745
john.lee@osakititan.com

☎ 24시간 에나 리 | Enna Lee

214-613-1630
enna.l@osakititan.com

www.TITANCHAIR.com
OTA World Osaki Titan AnaMedic
www.OSAKIUSA.com



하버드 다큐멘터리 <Earl.> 특별 상영... 한국계 작곡가 얼 김 조명

타이 김 감독 연출, 2차 세계대전과 매카시즘을 거친 음악가의 삶 조명 3월 25일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주최, 감독과의 대화 및 리셉션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가 오는 3월 25일(화) 오후 5시 하버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Earl.>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음대가 공동 후원하며, 상영 후 타이 김(Ty Kim) 감독과의 대화 및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Earl.>은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얼 김(Earl Kim, 1920~1998)의 삶과 음악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얼 김은 23년간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현대 음악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특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곡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며 무료로 피아노를 배우며 작곡가의 꿈을 키운 그는 UCLA에서 현대 음악의 거장 아놀드 쇤베르크에게 사사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꿈은 잠시 중단되었다. 1941년 미군에 징집돼 정보장교로 참전한 그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날 나가사키 상공을 비행하는 경험을 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매카시즘 광풍에 맞서 충성 맹세 서명을 거부했으며, 프린스턴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무엘 베케트와 협업하며 문학, 음악, 춤, 영상이 결합된 혁신적인 형식의 작곡 세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업적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먼, 풀리처상 수상 작곡가 존 하비슨, 하버드대 영화학 교수 알프레드 구제티 등이 출연해 그의 음악과 인생을 조명한다. 절친이었던 펄먼은 얼 김의 작품을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 보스톤심포니와 함께 앨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영화를 연출한 타이 김 감독은 스탠퍼드대학교 및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6개의 에미상과 에드워드 R. 머로우(Edward R. Murrow) 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김 감독은 2년에 걸쳐 33명을 인터뷰하며 얼 김의 뛰어난 복잡적이며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뉴욕과 로스

<전체 기사 읽기>

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초청 상영을 비롯해 6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다. 오는 6월에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사무엘 베케트 학회 컨퍼런스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서울 리움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재단(KACF-SF),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하버드대학교 특별 상영회는 캠퍼리지 소재 CGIS 사우스빌딩의 싸이 오디토리움(Tsai Auditorium)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자세한 정보 및 예고편은 공식 웹사이트 www.earlkimcompos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 3월 25일 오후 5시
장소 : CGIS South Building, 1730 Cambridge Street, Cambridge, MA 02138.

예 약 : https://docs.google.com/forms/d/1aTavi67tHbIYABWKE6szx-QBCEMhTLX0m26F_0NhsE7o/viiewform?edit_requested=true
hsb@bostonkorea.com



힐리 주지사, NIH 감축이 매사추세츠 경제 구석구석에 심각한 충격

>> 1면에 이어서

업체에서 로펌, 부동산 업계 그리고 은행 등 여타 업체에 두세 배의 큰 과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측이다. 주지사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메달려야 하는 일”이라며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녀는 상공회의소와의 만남에 앞선 25일 주청사에서 생명공학 및 대학 대표자들과 보건원의 기금 감축이 미칠 파장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주청사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주 정부 내각 관료들과 매스 바이오(MassBio) 대표부, 유매스(.UMass) 총장들이 참석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NIH 기금 지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학부에서는 프로그램과 신입생 등록을 축소하고 있고, 박사 과정과 박사후 과정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으며 연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으로 2-3년 후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진과 바이오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잃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실험과 연구가 중단된다면,

<전체 기사 읽기>

오랜 시간 쌓아온 성과를 잃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지사는 “현재 중국은 기금을 잃은 연구진들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조치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의 혁신은 다른 주에도 경제적 과급효과를 미친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서머빌에 기반을 둔 클린테크 회사 에너지(Energy)를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에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웨스트버지니아에도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기금 감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힐리 주지사는 단지 NIH의 기금감축 외에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보조금의 축소도 병원 운영에 타격을 가하고 저소득층에 어려움을 주는 등 다른 경제 분야에도 과급효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고등교육 분석가 제임스 머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접비 축소가 시행될 경우 매사추세츠는 2024년 기준 5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보스톤 다운타운, 치안 불안감 확산, 마약, 상점절도 빈번

살인, 총기 등 강력범죄는 확연히 줄었지만 경범죄 증가 경찰, 시 관계자, 주민 대표들, 2월 27일 긴급 회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살인 사건 발생률을 강조하며 도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유독 다운타운 보스톤만은 마약, 절도 등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23일 보스톤 커먼(Boston Common)과 다운타운 크로싱(Downtown Crossing) 지역에서는 범죄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민과 근로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정치인, 경찰 관계자들이 오는 2월 27일(목)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연다.

보스톤 경찰국(Boston Police Department · BP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다운타운 크로싱과 보스톤 커먼 지역에서 총 995건의 범죄가 보고됐다. 이는 2023년 958건에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점 절도(shoptlifting)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통계는 다운타운 주민협회(Downtown Boston Neighborhood Association)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11월 주민 3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가 "2024년 초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90%는 "다운타운의 공공 안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역 사회 지도자 리시 슈클라(Rishi Shukl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게 됐다"며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소한 3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운타운의 치안 문제는 오랜 과거부터 문제였으나 팬데믹 이후 증가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홈리스 캠프 강제 해산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매스 앤드 캐스(Mass. and Cass)'로 불리는 사우스엔드와 락스베리 경계 지역의 노숙자들의 캠프를 철거하면서 일부가 다운타운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운타운 크로싱은 주요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고, 대형 쇼핑몰과 상점들이 모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안 문제가 커지면서 보스톤 시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23년 다운타운의 범죄가 증가하자 2024년 3월 경찰은 "안전 쇼핑 정책(Safe Shopping Initiative)"을 펼쳐 상점과 경찰의 협업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상인들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도체스터의 사우스베이 쇼핑센터 지역도 경찰 배치를 강화했다. 보스톤 경찰도 다운타운이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스톤 시의회 에드 플린(Ed Flynn) 시의원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에머

슨 대학(Emerson College), 서퍽 대학(Suffolk University), 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안전 문제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상에서의 마약 거래를 단속하고 경찰 순찰을 늘려야 한다"며 시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기업 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운타운 보스톤 얼라이언스(Downtown Boston Alliance)', '매사추세츠 소매업 협회(Retailer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 '그레이터 보스톤 상공회의소(Greater Boston Chamber of Commerce)' 등은 보스톤 경찰과 함께 '안전 쇼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 상공회의소의 짐 루니(Jim Rooney) 회장은 "최근 보스톤 경찰과 수사당국이 상점 절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보스톤의 경제와 관광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운타운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일한 커스틴 우드러프(Kirsten Woodruff)는 "이전에도 범죄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매일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시 당국은 범죄율 감소를 강조하지만, 정작 거리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미셸 우 시장과 마이클 콕스 경찰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스톤의 살인 사건 수

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콕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점 절도와 같은 '경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운타운 주민들은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2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전체 기사 읽기〉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스톤 시의회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 인력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안 문제는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다운타운 크로싱 백화점에서 대낮에 청소년들 한 남성 폭행 및 강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 크로싱(Downtown Crossing) 메이시 백화점에서 20일 오후 3시께 10대 청소년들이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하고 가방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5명의 청소년들이 메이시 백화점 내에서 한 남성을 대상으로 주먹과 발길질을 동반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따라 들어가거나 백화점에서 계속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촬영했다. 이후 갑자기 가방을 빼앗고 집단 폭행을 가한 뒤 레드라인 지하철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심문했으며, 이 청소년이 협조를 거부하자 즉시 체포했다.

〈전체 기사 읽기〉

또한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배포받아 주위를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다른 2명의 가해자들을 발견해 심문했다. 한명은 경찰의 요구에 응했으나 다른 한명은 거칠게 반항하며 경찰에 침을 뱉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다 체포됐다.

체포된 청소년들은 14세와 16세였고 이들은 모두 폭행죄로 기소됐다.

이번 강도 폭행 사건은 최근 들어 다운타운 크로싱과 보스톤 커먼(Boston Common) 등지에서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다운타운 크로싱에서는 지난해 8월 중순 한 남성이 대낮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들은 27일 시 관계자 및 경찰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소아조로증 후원기 씨,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한다

▶1면에 이어서

리아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됐지만 이들은 이미 많은 노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여러가지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후원기씨의 마라톤 참가는 목숨을 건 도전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후원기씨의 주치의인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는 “늙으면 유산소운동이 어렵다. 마라톤을 실제 완주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마라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홍 씨는 한국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동생 홍수아씨가 함께 참여해 오빠가 힘들어지면 업고 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늘 변함없는 가족들의 지지가 과감한 도전 계획을 실행하는 용기의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원기씨는 어린시절 자신의 병을 깨닫고 한동안 방황을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런 마음을 가족들과 진솔하게 나누면서 점차 극복했다. 홍씨는 “난 이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병을 꼭 이겨내고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졌고 자신의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는 좋아하는 히어로 시리즈 가면라이더 장난감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당을 물리치는 ‘상상놀이’ 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한 좋아하는 피아노와 글쓰기에 집중한다. 12살 때부터 시작해 여전히 악보를 보지 못하는 피아노는 음악을 듣고 외워 연주한다. 손도 짧고 다리 관절도 약해 불편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면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곡의 세계로 제가 들어간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아이패드를 통해 글을 쓰며, 배운 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글이 써진다고 전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마음이 좋아진다. 후원기 씨는 “하지 못하는 것에 연연해 하기 보다는 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제 방식” 이라고 말했다.

홍씨의 아버지 홍성원 목사는 “사실 한국 나 이로 스무살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여러가



지로 몸은 많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골다공증도 진행되고 있고, 간수치도 높고 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고 말했다. 홍 목사는 “원기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늘 즐겁게 그리고 멋지게 삶을 살아간다. 원기의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홍 목사는 보스톤 방문 기간 동안 후원기씨 피아노 연주를 선보일 기회를 갖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송한얼씨의 도움으로 고편미(Go Fundme)를 통해 4천 5백여 달러를 모았다. 보스톤에서는 우스터레드십스가 그를 위해 공식적으로 후원모금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스톤지사, 바이오테크제약협회(KASBP), 코리언아메리칸협회(CKA), 뉴잉글랜드생명과학협회(NEBS) 등도 지원에 나섰다. 보스톤지역 한인유튜버 승찬리, 아라뫼하니, 바로보스톤 등도 홍보를 돕고 있다.

“언젠가 프로제리아를 극복하겠다” 는 미겔과 후원기씨의 도전이 4월 보스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그 즈음에는 목련도 필 것이다.

후원기 X 미겔 고편미 사이트 : <https://www.gofundme.com/f/help-wongi-and-miguel-reunite-in-boston-and-fight-progeria>
editor@bostonkorea.com

트럼프, 500만 달러 '골드 카드' 영주권 도입 제안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하고 새 시스템 도입 계획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경제에 기여할 것” 주장 실현되면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상 ‘잃어버린 꿈 될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부유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입해 미국에 들어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고 세금을 많이 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극히 성공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영주권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권 취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골드 카드 시스템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EB-5 프로그램은 1990년대 도입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소 90만180만 달러(약 12억24억 원)를 미국 내 특정 사업에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과 같은 주들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동안 사기 및 남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가 수주내 시작될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최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애플과 같은 대기업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고급 기술 인력을

〈전체 기사 읽기〉

미국에 영구 거주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연간 10,000개 비자를 할당하고, 한 국가가 최대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2022년 5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은 대기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 카드 시스템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500만 달러를 납부하면 즉시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B-5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사례를 비판하며, 새로운 골드 카드 시스템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인지 확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익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푸너 컴퍼니는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EB-5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등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뉴네스트 건축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a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메디케어의 여러 등록 기간 중 두 가지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

메디케어의 여러 등록 기간 중 두 가지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가정 에너지 지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Q1〉 저의 초기등록기간을 놓쳤습니다. 언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요?

메디케어의 초기등록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을 놓쳤고 특별등록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이 허용되는 변경사항도 없는 경우라고 해도, 일반등록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등록하면 4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입지

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월 납입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저는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 메디케어 개방등록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제 상황에 더 적합한 플랜을 찾았습니다. 새로 찾은 플랜으로 바꾸려면 다음 개방등록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연간 메디케어 개방등록기간 (Medicare Open Enrollment Period,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후에 더 나은 플랜을 찾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개방등록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개방등록기간 (Medicare Advantage Open Enrollment Period)이 열리고 이 기



간 동안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되돌아가면서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등록된 사람만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변경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Q3〉 날이 갈수록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옵션이 있나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가정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를 돕는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가구에 매년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직접 지급되거나 해당 에너지 회사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50% (예: 2인 가구의 경우 월 \$2,55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자산을 자격 요건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이 연중 내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겨울철에 운영되며, 보통 11월에 시작해 4월에 종료됩니다. 요즈음이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중국 표준어) 1-800-683-7427, (중국 광둥어) 1-800-582-4218, (한국어) 1-800-582-4259, (베트남어) 1-800-582-4336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Senior Assistance Center,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전미 아태 노인센터(NAPCA)는 APIAHF(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인 건강 포럼)과 CVEEP(Champions for Vaccine Education, Equity, and Progress, 백신 교육, 형평성, 진보를 위한 챔피언)과 협력하여 백신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뚜인디블뤼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엔비디아 'AI 열풍 끝나지 않았다'...실적 예상치 상회

2~4월 첫 400억달러 돌파 전망... "블랙웰 수요 놀라워, 속도·규모 최대" "딥시크 R1 뛰어난 혁신, 매출 영향 없고 희소식"...시간외주가는 혼전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 393억3천만 달러(56조4천582억원)의 매출과 0.89달러(1천277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 매출 380억5천만 달러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달러를 웃돌았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2~4월) 매출이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예상치인 417억8천만 달러에 비해 3%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고, 순이익은 220억9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0% 증가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최신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은 1년 전 대비 93% 급증한 3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의 예상치인 336억5천만 달러보다 5.8% 더 많았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고 말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부터 생산에 들어간 최신 AI 칩이다.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는 수요 일 1분기 매출 증가를 전망하며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며 "AI 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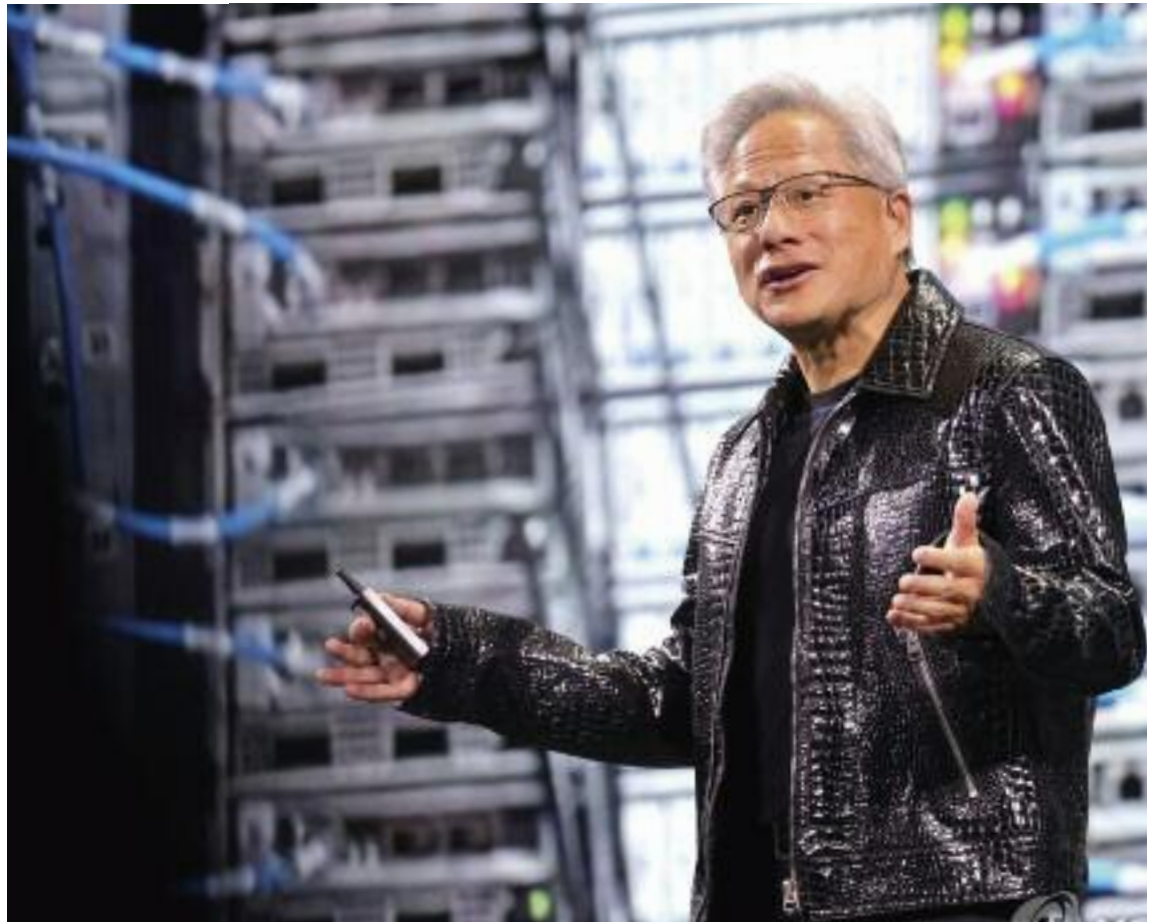
황 CEO는 실적 발표 후 투자자와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중국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딥시크의 추론 모델 R1을 "뛰어난 혁신"이라며 R1을 비롯해 추론 모델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R1은 전 세계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켰다"며 "추론 모델은 (일반 모델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고 미래의 추론 모델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이 추론을 위해 맞춤 제작됐으며 이 칩에 대한 "수요는 놀라워, 우리는 2025년에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딥시크는 가성비가 뛰어난 AI 모델로 전 세계 테크 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에 비싼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에 17% 급락한 바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지난 3개월간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우리 제품 중 역대 최대"라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CEO는 "우리는 이제 막 AI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멀티모달 AI,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물리적 AI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 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지난 분기 중국 매출이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무역 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면 절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3D 게임을 위한 그래픽 프로세서를 포함한 게임 비즈니스 부문 매출은 25억 달러로, 스트리트어카운트의 예상치 30억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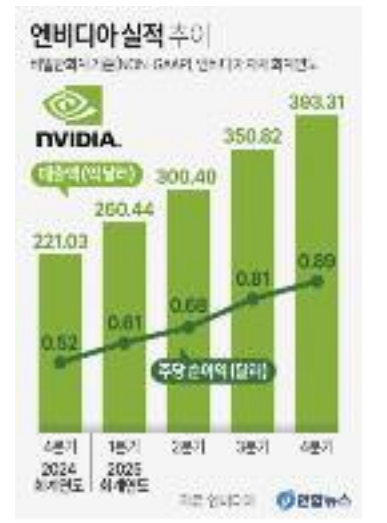
엔비디아의 성장 카테고리 중 하나인 자동차 및 로봇용 칩 부문 매출은 5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황 CEO는 "언젠가 전 세계 도로에 10억 대의 자동차가 달릴 것"이라며 "그 모든 차량이 로봇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3.67% 상승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 이상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등 혼전세를 나타냈다.

taejong75@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트럼프 "누가 그에게 불만있나?"...첫 각의서 확인된 머스크 위상

정식각료 아닌 머스크 "정부지출 안 줄이면 파산...많은 살해위협 받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스포트라이트를 흠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백악관 재입성(1월20일) 이후 처음 개최한 각료 회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 대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렇게 총평했다.

트럼프 27일의 신설 조직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머스크가 정식 각료가 아님에도 이날 회의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발언 요청을 받은 뒤 정부 지출 삭감 계획 등을 밝힌 데 대한 평가였다.

언론에 공개된 회의 초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발언자로 지목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남자 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농담조로 "일론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누가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참석한 각료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반응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머스크는 "우리는 수조 달러의 연방적자 감축을 이루기 위해 빨리 움직

여야 한다"며 "우리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감축 계획에 대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일을 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대로 두고 싶다"고 했지만 "그일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공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머스크는 DOGE가 에볼라 예방 프로그램을 취소한 일을 거론하며 "우리는 실수를 한다. 완벽할 수 없다"고 했지만 "DOGE의 전반적인 목표는 거대한 연방정부 부채 해소를 돕는 것"이라며 "우리는 2조 달러(2천 870조 원)의 적자를 가진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식 각료는 아니나 '특별 정부 직원'이자 '대통령 선임 고문'으로 분류되는 머스크는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미국 공직 사회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온 동시에 적법성 논쟁에 휘말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형 최측근인



그는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착용하는 '마가(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트럼프의 선거 구호)' 모자를 썼고, 검은색 재킷 안에 '기술지원'(Tech Support)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착용했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신의 셔츠에 새겨진 문구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며 "나는 그저 변변치 않

은 기술 지원자"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 표지 모델로 백악관 대통령 책상을 차지한 자신의 사진(합성사진)이 등장하면서 '실권자(實權者)'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의식한 듯 '의도된 겸손'의 몸짓으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

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도를 제안했고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표 기도자로 나섰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좌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앉았다.

jhcho@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를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외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

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최 대행을 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앞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water@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28th - MAR. 6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UPER QUICK & SIMPLE SCALLION KIMCHI

It's time to try scallion kimchi! Super easy and quick to make at home—all you need is one bowl to get it done!
집에서도 손쉽게 똑딱! H 마트와 함께 파김치를 만들어보세요!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49	Garlic 마늘 5 PCS/PKG \$1.99	Kabocha 단호박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BOX \$29.99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2.99	Ginger 생강 LB \$2.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3\$2 FOR EA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11.99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4.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99	Pork Jowl Meat 돼지 향정살 LB \$7.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3.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3.99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7.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Jeju Hairtail 제주 명품 은갈치 PRODUCT OF KOREA 9.17 OZ/PKG \$9.99
Frozen Squid 오징어 400 UP/LB \$2.99	Frozen Whelk Meat 소라살 LB \$11.99

SMART CARD MEMBER ONLY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PULMUONE Katsuo Udon 풀무원 가쓰오우동 1.02 LB \$5.99
CHUNG 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3.99	DR. CHUNG'S FOOD Soy milk with Blackbean & Calcium 닥터정 비지밀 칼슘함유 검은콩두유 6.4 FL OZ X 24 EA/PKG \$15.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4.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14.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9.99	JINGA Tteokbokki Rice Cake 진가 쌀떡볶이떡 2 LB \$4.99	K TOWN Dukboki Traditional Family Recipe 케이타운 그때 그맛 국물 떡볶이 ORIGINAL 1.32 LB \$4.99
PULMUONE Hana Katsuo Udon 풀무원 하나 가쓰오우동 32.98 OZ \$8.99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 푸드셀 납작당면 1 LB \$2.99	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우동 푼배기 번데기탕 SPICY/SOYBEAN PASTE 9.87 OZ \$2.99	Milk Classic Rice Snack 밀크 클래식 쌀과자 8.46 OZ \$4.99
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3.99	CROWN Choco Pie Value Pack 크라운 초코파이 벨류 팩 25.4 OZ (12 EA X 2 PKG/BOX) \$4.99	Soso Town Plush 소소타운 포근포근 애착인형 마이베이비 쿠션 PUPPY/UNICORN/BEAR/DINOSAUR -\$19.99 \$12.99 EA	HELLO HOME Ceramic Coating Fry Pan 헬로홈 에코텍 시리즈 사각 후라이팬 10.63 INCH/IVORY/EA -\$28.99 \$22.99 EA	KüHAUS Retro 2-Slice Toaster 쿠하우스 레트로 토스터기 IVORY/MINT -\$24.99 \$17.49 EA

TOBAGI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김수진 617.528.6973 kim@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13.503.038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park@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88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장희정 617.915.1162 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규 617.943.0728 jjang@bostonpremierrealty.com	 박인희 404.641.9102 park@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ang 248.448.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韓 "계엄날 체포 가능성" 언질받아...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

"尹, 계엄 후 만난 자리서 '국회 해산'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사퇴 압박받아...김여사 비선라인 보고로 벌어진 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한 여권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으며, 이후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을 뒤집으며 당을 향해 '몇 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던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오해로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을 받았으면서, 이 과정에 김 여사의 '비선 라인'이 개입한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 "輿인사 '은신처 정해서 숨어라' '조언...秋와 '국회 이동' 놓고 이견"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사태 해결을 위해 여의도 당사로 향하던 중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의 체포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인사는 한 전 대표에게 "체포 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며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당사에 도착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만났으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이동'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 전 대표는 전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4일 김기현·권성동 등 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거론했다고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참석자 중 누가 국회 해산에 대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계엄 사태 종료 이후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 직위 내정자와 전화했고,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미국도 자신의 주장에 공감했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계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 "尹, 당에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탄핵 부결시켜달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2차 표결에 앞서 약속한 '임기 단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관계자가 전한 대통령의 진의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 자신 사퇴할 생각 없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는 2차 표결 전날인 12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과 별도로 만나 '한 번 더 탄핵을 부결시켜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원내대표는 내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진의원들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그러면서도 '어차피 구속될 것인데 우리의 손으로 탄핵을 가결하면 정무적 부담이 크니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마시다. 그러면 한 대표대선 가도에도 안 좋다'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김여사 비판' 김경률 비대위서 내보내길 바라"

한 전 대표는 당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 전인 2023년 12월 말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직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갑자기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통해 전화가 왔다. '비대위 원장직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요구였다"며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그날 한 언론에서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이 그 멘트를 내가 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비서관에게 즉시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몇 시간 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며 '사퇴 표명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며 "뒤늦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 걸 알게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목소리를 낸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회계사를 우리 당 비대위에서 내보내길 바랐다"며 "왜 김 회계사의 발언을 통제 못 하느냐고 나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이른바 '비선 라인'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 전후까지 용산에서 여러 사람이 쫓겨났고,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상당수 사람의 면면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 취임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를 받은 것도 비선 라인에서 보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구속 상태에서 연일 폭로 '명태균의 입'... "제 살길 찾거나선 듯"

최근 홍준표·오세훈 시장에 잇단 공세...당사자들 "명백한 허위"

(서울=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에서 연일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폭로를 빌미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산병에도 도움받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명씨와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 변호사가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명씨 주장을 빌려 홍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씨를 함께 만났거나 명씨가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는 이날 "홍 시장과 명씨 만남이 4차례나 된다"며 구체적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홍 시장 측은 이 발언 다음날 대구 시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완전한 날조"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번이 9번째"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에는 2014년 3월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당시 경남지사이던 홍 시장이 사회를 보는 명씨와 함께 찍

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 명씨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해온 홍 시장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내용도 폭로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명씨 주장을 전했다.

오 시장 측은 같은 날 "명태균 일당은 막말 나열에 이어 거짓말까지 짜내고 있다"며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지난 20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라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

명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오세훈, 홍준표가 고소할 걸 알고 분하고 화가나 3일 잠을 못 잤다. 하나씩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명씨의 잇단 폭로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씨가 '제 살길 찾거나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FEB. 27TH - MAR. 6TH, 2025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



3월 3일 **3겹살 데이**
Pork Belly Day!

\$3.33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FAMILY PACK/LB



Frozen Soy Sauce Marinated Crab + Spicy Marinated Crab
수협 간장게장 + 양념게장
 2.86 LB/PKG



\$12.99

LIMIT 3 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야욕과 추문, 암투로 들끓는 교황 선거...영화 '콘클라베'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검은색 코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노년의 남자 로렌스(레이프 파인스 분)가 한밤중 적막이 내려앉은 도시를 전갈음으로 가로지른다.

그가 향한 곳은 바티칸 교황청.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는 교황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다.

평소 아버지처럼 교황을 따랐던 추기경 로렌스는 애도할 틈도 없이 콘클라베 단장 직을 맡아 차기 교황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첫 투표 전 시스티나 성당 연단에 올라간 그는 "주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십사 간구해야 한다"는 뻔한 말을 하더니 갑작스레 안경을 벗고 계획에 없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가 투표를 위해 모인 118명의 추기경을 향해 건넨 말은 "확신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요, 통합과 포용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이니, 끊임없이 의심하는 교황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강력한 정치 연설처럼 들리는 그의 말에 추기경들은 술렁인다.

넷플릭스 영화 '서부 전선 이상 없다'(2022)로 호평받은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신작 '콘클라베'는 로렌스가 교황 선거인 콘클라베를 주관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정치 칼럼니스트 출신 작가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로렌스가 콘클라베 과정에서 목격하는 추기경들의 모습은 야욕과 추문, 암투로 들끓는 정치판 못지않게 살벌하다.

이들은 출신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파벌을 만들고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는다.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를 떨어트

리려 '전략 투표'를 하거나 뒤에서 말을 맞추는 광경은 장소만 국회에서 교황청으로 옮겨졌을 뿐 그동안 뉴스를 통해 많이 봐온 그림이다.

개혁파와 보수파로 두 동강 나 쪼뼌처럼 화합하지 못하는 바티칸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최근 우리의 정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콘클라베를 현실 정치에 빗대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동성애와 이혼 등 가톨릭의 화두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아동 성추문 사건 같은 '역린'을 건드리며 비판의 날을 세운다. 남성 중심 조직에서 배제되는 수녀들에게로 시선을 가져가기도 한다.

영화 속 교황이 개혁을 지향하고 백발의 백인이라는 점이 현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는 각색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폐렴으로 위중한 상황인 만큼 콘클라베 속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다름 아닌 정치 스릴러물을 보는 듯한 재미에 있다.

로렌스가 추기경들의 민낯을 하나씩 벗겨내고 투표를 거듭할 때마다 긴장감으로 인해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 빠른 템포의 현악 기반 OST(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스타 일리시한 편집까지 더해지며 몰입감이 어마어마하다.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과 로렌스의 마지막 선택은 저절로 '아멘'을 읊조리게 할 듯하다.

로렌스는 추기경들에게 교황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내내 강조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 어려워진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플라톤의 격언을 들은 그의 표정은 미묘하다. 어쩌면 이 작품에서 신의 가장 잔혹한 시험에 드는 인물은 로렌스일지 모른다.

로렌스를 연기한 파인스는 이 역할로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다. 1996년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후 29년 만의 노미네이트다.

북미 개봉 이후 커리어 중 가장 뛰어난 연기라는 극찬을 받았다.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아그네스 수녀 역의 이사벨라 로셀리니는 전체 러닝타임 중 7분 51초만 등장했지만, 강렬한 연기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콘클라베'는 이 밖에도 작품상, 각색상 등 총 8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3월 5일 개봉. 120분. 12세 이상 관람가.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2) 직장인 은퇴 준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라스베이거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기대하며 도박장에 모인다. 도박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베팅한 즉시 돈을 뺏는지 잃었는지를 바로 안다. 만일 도박 베팅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일주일 후에 알려준다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도 일반인은 어떤 기업에 투자한 후 주가가 상승을 수시로 확인한다. 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지만, 어떤 기업의 경영, 제품, 재무제표, 등은 주가가 어떻게 자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마음은 조급하다.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마음이 도박하는 마음과 비슷하며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돈이 불어나기 위해서 즉 돈이 복리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 달에 \$585씩 한 해에 \$7,000 (2025 IRA)를 10% 이자로 투자한다

고 가정하자. 10년 후는 약 \$12만 불, 20년 후는 \$42만 불, 그리고 30년 후는 약 120만 불로 불어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하면 2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나서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의 대부분은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기에 여윌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은 분명 흘러가고 언젠가는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다. 은퇴한 후 부부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 절세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한다고 하자.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준다. 이것이 진짜로 공짜 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5년 기준으로 \$23,5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23,500을 투자하면 \$76,5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 \$31,0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된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가 온다, 전쟁이 난다, 이자율이 오른다, 등을 걱정하며 투자하지 않았으면 2023년 24% 그리고 2024년 2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재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천천히 부유해지는 것은 매우 쉽다' 고 언급한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멜로가 체질' 감독이 건네는 위로 '괜찮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 이병헌 감독과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공동 연출한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스스로를 직접 돌봐야 하는 소녀 인영(이레 분)의 꿋꿋한 성장기를 그린다. 제목은 영화의 주제를 담은 말이자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주문이다.

인영이 처한 환경은 불우하지만, 정작 그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고 무료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주눅 드는 법이 없어서다.

한국무용을 하는 그는 서울국제예술단 에이스 나리(정수빈)가 "반티 나는 애가 싸가지도 없냐"고 공격해 오면 "내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유튜브로 독학했다"고 웃으며 되받아친다. 유일한 쉼터인 월세방에서 쫓겨나자 아무도 모르게 연습실에 숨어 살기도 한다.

이런 인영을 관객은 무한 응원하게 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제대로 된 어른이 그를 돌봐주기를 바라게 될 때쯤 예술단에서 마녀로 불리는 감독 설아(진서연)가 등장한다. 설아는 한밤중 연습실에서 인영을 맞닥뜨리고 그의 처지를 알게 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무뚝뚝한 말투로 고민을 상담해주는 약사 동욱(손석구)도 인영의 팍팍한 삶에 소금 같은 존재다. 인영에게 작은 호의를 보내는 주변 인물 면면을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 초청돼 수정공상을 받았다. 어린이·청소년 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으로 "엄격함과 규율, 생동감과 멈출 수 없는 생명력, 모녀 관계, 사랑과 상실, 야망, 경쟁, 연대 등 모든 것이 등장인물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전개되며 그런 점에 매력된다"는 평을 받았다.

26일 개봉. 102분. 12세 이상 관람가.

▲ 백수아파트 =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지 알아? 용역 강패? 경찰? 금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동네 오지랴파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누나 거울(경수진)을 가리키며 두운(이지훈)이 말한다. 거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돈벌이도 하지 못하는 백수지만, 넓은 오지랴 탓에 늘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린다.

영화는 그가 이사한 아파트에서 새벽 4시만 되면 쿵쿵대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다.

거울은 모든 집의 전수조사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이웃 지원(김주령), 경석(고규필), 섯별(최유정)과 친분을 쌓는다. 이들은 거울과 함께 6개월째 자기들을 괴롭히는 증간소음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평범한 소시민의 추리극을 그린다는 점에서 이요섭 감독의 '범



죄의 여왕'(2016)이 떠오르지만, 거울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스토리를 이끄는 덕에 한국형 '어벤저스' 같기도 하다.

영화 '화차', '신세계', '대호' 등에서 연출부로 참여한 이루다 감독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편 영

화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돼 제작됐다. 배우 마동석이 제작에 참여했다.

26일 개봉. 98분. 12세 이상 관람가.
rambo@yna.co.kr

3월 2일 - 3월 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운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소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원가 사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3, 6일 주의.

범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거래하기에 유리할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용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장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5, 8일 길일. 6, 7일 주의.

뱀띠 | 가슴을 옹동치게 하는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치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옹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 5일 길일. 4, 7일 주의.

말띠 | 깊이 생각해 보아야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양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3, 7일 길일. 6, 8일 주의.

원숭이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 운수: 격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닭띠 | 대책을 세워 놓아야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틀어 생기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틀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7일 길일. 6, 8일 주의.

개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본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돼지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배운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박형식의 무겁고, 강렬한 연기 변신... '보물섬' 6.1%로 출발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카리스마 넘치고 야망 있는 대기업 상무로 변신한 박형식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드라마 '보물섬'이 시청률 6%대로 출발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드라마 '보물섬' 첫 회 시청률은 6.1%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대산그룹 회장비서실 대외협력팀장인 서동주(박형식 분)가 회사를 제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이 담겼다.

서동주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을 둔 연로한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우현)의 곁을 지키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잡을 기회를 노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법학 대학원 석좌 교수 염장선(허준호)은 대산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돈과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전 검찰 총장 출신 염장선은 자기 조카를 차강천의 외손녀와 결혼시키며 대산그룹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한다.

'보물섬'은 첫 회부터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냈다.

주로 밝고 따뜻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여온 박형식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눈길을 끌었고, 허준호의 존재감 뚜렷한 악역 연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몰입감을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スクール' 첫 회 시청률은 5.6%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국정원 '에이스' 요원 정해성(서강준 분)이 고종 황제의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 고등



학교에 학생으로 위장 잠입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나 정해성은 안면이 있는 오수아(진기주)를 담임으로 만나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과거 술자리에서 만나 정해성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오수아는 정해성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고, 그를 엄하게 단속하기 시작한다.

'언더커버 하이スクール'은 서강준의 전역 후 첫 복귀작으로, 코믹과 액션,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재미를 녹여냈다.

서강준은 문화재를 밀반입하는 무리를 추적해 단숨에 제압해내는 액션 연기부터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서 능청스럽게 넘어가는 코믹 연기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냈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지드래곤, 정규3집 '위버멘쉬'로 컴백... 발매 직후 음원차트 정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이 25일 오후 2시 정규 3집 '위버멘쉬'(Ubermensch)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이 정규 앨범을 발매한 것은 2013년 9월 '쿠테타'(COUP D'ETAT) 이후 11년 5개월 만이다.

앨범명인 '위버멘쉬'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인 '초인'에서 따왔다. 앨범 표지는 맨발의 지드래곤

이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투 배드'(TOO BAD)를 비롯해 선공개곡 '파워'(POWER)와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드라마'(DRAMA) 등 8곡이 담겼다.

타이틀곡은 흥겹고 리드미컬한 비트가 특징인 곡으로 한국계 팝스타 앤디슨 팩과 협업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특별 출연했다.

반면 발라드곡 '드라마'에서는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에 맞춰 영

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활용한 가사로 눈길을 끌었다.

앨범은 발매 직후 '투 배드'가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정상을 석권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멜론 '톱 100' 차트에서는 '홈 스위트 홈'이 3위, '드라마'가 5위에 오르는 등 수록곡 전곡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최근 MBC 예능 '굿데이'에 출연 중인 지드래곤은 다음 달 29~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cjs@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67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제3차 필리핀 40여개 지부 발대식을 마치고...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은 지난해 11월 '제2차 필리핀 16지부 발대식과 햇불기도회' 를 마치고 2025년 2월 12일부터 22까지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사와 3명의 임원 목사들이 참여해 '제3차 필리핀 40여개 지부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 및 햇불기도회'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현지인들의 말이다. 지난 2차때의 칼로칸본부와 톤도본부를 이어서 제3차에는 퀘존본부, 블라칸본부, 베네수엘라본부를 포함 합하여 70여 지부가 생긴 것이다.

필리핀 지역은 무덥고 환경 조건이 열악한 곳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도 무더위를 식히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목사와 임원목사들이 사역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용사들도 '필리핀 사역' 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의 일꾼으로 용사

로 지지지 않고 나오되지 않고 꽃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300용사 부흥단〉 표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신 2:25)

말씀을 표어로 삼아 한걸음 한걸음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 지부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골목골목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 확실하다.

단체(300용사 부흥단)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밖에 되지 않지만, 뉴욕과 LA, 일본, 사이판 그리고 필리핀의 뜨겁게 타오르는 햇불기도회는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확산되고 있다. 놀라움이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 이

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의 기드온을 세워 이끄시던 하나님의 군대 바로 〈300용사 부흥단〉이 그 용사들이다.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사는 말한다. 나는 그저 '기드온의 역할' 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말이다.

필리핀 지역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의 사역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도 지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30여 지부가 늘면 100개 지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지부마다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총재 정주갑(Paul Jung)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리핀에서 '만명 집회' 가 열리는 현실이 다가올 것 같다고 말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한다.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2025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필리핀 지역 본부장들과 지부장들의 얘기를 따르자면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 여러 단체가 집회를 열고 기도회를 해주

고 먹을 음식을 나눠주고 갔지만,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는 지금까지의 어느 단체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보아도 어느 단체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넉넉하지 않은 단체라는 생각을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단체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순수함과 진실함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300용사 부흥단〉 '햇불기도회' 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를 최우선으로 한다. 지금에 처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뉴욕과 LA 지역), 일본, 사이판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 열방으로도 '햇불의 불씨' 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곳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느 곳이 열릴지 우리는 모를 일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 문구 역시 어렵지만, 귀에 마냥 낯선 글귀는 아닐 것이다. 한 번 더 손을 댈다. '그때는 잘나갔는데, 지금은 시원치 않다.'

독일이 한창 잘나갈 때다. 유럽의 리더로 손색이 없었다. 메르켈 총리 시절을 말한다. 그의 실적을 보면 대단하긴 하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 완벽했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른 정치세력과의 소통할 수 있었다 했다. 원전폐기, 모병제 실시, 동성 결혼 등 진보적 이슈까지 수용했다는 거다. 게다가 문호를 개방해 난민 100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이 짙던 그이었으나 진보세력까지 품기도 했다던가. 그런 독일도 이젠 빛을 잃어가는가?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동반자

관계이다. 캐나다 역시 휘청이었다. 트뤼도 총리가 물러났다 했다. 젊고 잘생긴 영화배우와 같았던 그 총리 말이다. 그의 역시 명분과 가치를 자국의 실리보다 앞자리에 세웠다고 했다. 그의 이민 정책 덕에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었다는 거다. 덕분에 실리가 우선인 미국 트럼프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처지에 몰렸다 했던가.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조롱섞인 말임에 틀림없는데, 캐나다 국민에게겐 모욕에 가까울 언사이다. 하긴 이젠 멕시코를 포함해 캐나다에 관세를 무려 25% 씩이나 부과한다고도 했다(보스톤코리아, 2-1-2025). 결정을 보류한다 했다지만, 엄청난 세금임

에 틀림없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리더이고 큰손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여차하면 이런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했던가. 힘있는 편에서 내지르는 으름장이 아니겠나 싶다. 모두 움추릴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책이 없다.

귀거래사의 첫 구절이다.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뒤늦은 감은 없지 않다만, 너나 없이 깨달을 각황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깨닫고 있던가? 한국 역시 돌아가야 할텐데, 명분인가 실리인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태 15:16)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몇 해전 한국 영화의 제목이다. 제목치고는 길다. 그런데 말의 출처는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라 했다. 한자어가 어려운데 '覺今

是而昨非' 이다. '지금은 옳지만 과거는 그르다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다.

구절을 뒤튼다. 昨是而今非. '그때는 맞았다만 지금은 맞지 않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예방접종 적극 참여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백일해에 대해 휴람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 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백일해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사례가 나왔다. 사망자는 생후 2개월 영아로 통상 생후 2개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백일해는 유행 들어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31명에 그쳤던 환자 수가 지난해 2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3만33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연령대는 7~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 돌 이전 영아 환자도 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2022~2023) 병원을 찾은 백일해 환자는 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명의 환자가 다녀갔다. 대부분 10~12세 어

린이 환자였다. 특히 10월과 11 월에만 27명의 환자가 집중돼 현재까지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일해는 성인 무증상 감염이 어린이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추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상황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여파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은 영아 10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일해는 보르데렐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강력한 기침 증상이 특징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이 진행되다가 수 주에 걸쳐 발작적이고 심한 기침이 나타나며, 기침 끝에 "윽"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복기에는 기침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복까지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곤란, 무호흡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일해 검사는 코, 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균을 배양하는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이 충분하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은 DTaP 또는 Tdap 백신이 효과적이다. 이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접종 받은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접종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가 전염성을 줄이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인 DTaP백신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2,4,6개월에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생후 15-18개월과 만4-6세 아이들이 대상이다.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은 만 11-12세에 1회 접종이고 성인은 10년마다 추가접종을 권장한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27-36 주) 임신부와 영아를 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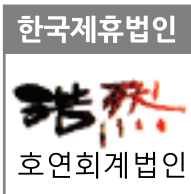
는 부모나 의료종사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침이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되거나 특별한 기침 소리가 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예방접종 적극 참여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Th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presents



KSEA NMSC 2025

전국 수학 & 물리 경시대회

수학 시험 4-11학년

2025년 4월 5일

오후 2:00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등록 마감 2025년 3월 31일

<https://nmisc.ksea.org>

Sponsored by





106년의 독립운동









삼일절
기념식

일시 2025년 3월 1일 오후 2시

장소 : 북부 보스톤 교회
224 Lowell st . Andover. MA
01810



- 주최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주 보스톤 총 영사관

- 협찬
-  북부 보스톤 교회
 -  보스톤 코리아





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유길준 갤러리 한국관
오픈 후원의 밤
조선에서 세일럼까지

P | E | M
Peabody Essex Museum

Artist in Korea, Fan (taege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ffi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태극선 (부분), 18세기. 종이, 옷칠, 나무. 1900년경 Edward Sylvester Morse 기증. E4439. 쌍학홍배 (부분), 19세기. 비단에 자수. 1899년 Gustavus Goward 기증. E9785. 활옷 (부분), 18세기 후반. 비단에 자수, 종이, 면, 양모, 금속. 1927년 기증. E20190.F. 평안감사 환영도 (부분), 19세기. 비단에 채색. 1927년 W.C. Endicott와 George A. Peabody의 후원으로 박물관 구입. E20262.A.



은퇴준비 및 자산관리 세미나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Seminar

은퇴 | 자산관리 | 상속

- BOSTON -

3/7/2025 (Fri.) 7~9(pm)
미국에서의 은퇴 준비

3/8/2025 (Sat.) 10~12(am)
자산관리 & 상속
(한국 vs. 미국)



The Westin Waltham-Boston
(Lincoln Room)

70 Third Ave. Waltham, MA 02451



UNloffice.ma@gmail.com
617-468-6446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RSVP Recommended /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